



윤동녕(서울장신대)

서론

요시아 왕은 재위 제18년에 왕의 서기관 사반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한다(왕하 22:3-7).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힐기야는 “율법책”(הַסֵּפֶר הַחֻקִּים/세페르 하토라)을 발견한다(8절).¹ 힐기야는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사반에 전달하였으며, 사반은 왕 앞에서 낭독하였다(9-10절).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11절)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지만 요시아 왕과는 달리 힐기야나 사반은 율법책에 대해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

1 ‘책’으로 번역된 ‘세페르’는 ‘두루마리’로도 번역할 수 있다. 요시아 시대에도 파피루스로 된 책(codex)이 존재했을 수 있어, 세페르가 꼭 두루마리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두루마리 형태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존 그레이, 『열왕기하』 (한국신학연구소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386. 원제는 J. Gray, *II Kings* (London: SCM, 1977). ‘세페르 하토라’라는 명칭은 신명기 등에 자주 등장한다(신 28:61; 29:21; 30:10; 31:26; 수 1:8; 8:30-35; 23:6; 24:26).

고, 신하로서의 책무만 다한다.² 힐기야는 그 책을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그 책을 “율법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책의 기원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보인다. 심지어 서기관 사반은 두 번씩이나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8, 10절), 그것을 하나의 “책”(혹은 두루마리)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³ 하지만 “그것의 유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한”⁴ 요시야 왕은 힐기야를 비롯한 왕의 신하들에게 ‘홀다’를 방문해 그 내용의 진위성을 파악하라고 명령하였다.

홀다와 관련된 요시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2-23장과 역대기하 34-35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본문은 요시야 개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홀다의 예언 부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홀다의 본문은 모두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왕하 2:14-20; 대하 34:22-28).⁵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라 왕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개혁은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 개혁운동은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나 일부 정치적 후원자의 지지만으로는 완수할 수 없었다. 개혁을 지지할 종교적 이념이 필요했다.⁶ 고대근동에서 신전 건설이나 제의 개혁에는 신들의 재가(裁可, sanction)가

2 W. Brueggemann, *1 & 2 Kings* (Macon: Smyth & Helwys, 2000), 545.

3 리차드 넬슨, 『열왕기상하』 (김희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00. 원제는 R.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4 넬슨, 앞글, 400.

5 열왕기에서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 개혁의 결정적인 동기로 작동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미 진행된 개혁에 대한 일종의 반응/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임태항, “역대기에서 홀다의 예언: 대하 34:22-2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5(2017), 82.

6 이동규에 따르면, 고대근동 왕들은 세 단계를 걸쳐 개혁을 시행하였다. 첫째 신탁으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둘째, 이를 위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셋째, 개혁을 위해 지배층이나 지식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그 현대적 교훈” 『구약논단』 66(2017), 293-98.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탁이나 예언 같은 계시 수단을 통해 신의 재가를 검증하였다.⁷ 이러한 점에서, 성전에서 “율법책”(토라)을 발견하는 과정은 개혁에 대한 신의 재가라 할 수 있으며,⁸ 예언자 홀다에게 가저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한 것은 계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검증의 단계라 할 수 있다.

홀다는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예복을 주관하는” 직책을 맡은 살룸의 아내이자 여예언자(נְבִיאָה/느비아)로 소개되고 있다. 존스(G. H. Jones)는 홀다의 남편 살룸이 성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살룸의 직책은 바알 신전의 “예복 맡은 자”(왕하 10:22)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⁹ 그래서 프리스트(J. Priest)는 홀다가 남편을 따라 예언자로서 성전의 직무에 참여한 제의 예언자였다고 주장한다.¹⁰ 가프니(W. Gafney)도 전통 신학을 기반으로 한 홀다의 예언은 그가 제의 예언자로서 활동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¹¹ 핸디(L. K. Handy)는 홀다가 궁궐과 성전에 동시에 고용된 직업적인 예언자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왕과 신들 사이에 신탁 전문가들이 중재하며 징조를 해석하였듯이, 홀다가 성전에서 종사하며 왕의 명령에 따라 왕에게 예언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 코간과 타드모(M. Cogan and H. Tadmor)는 홀다가 궁중 예언자였다고 주장한

7 N. Na'aman, “The King Leading Cult Reforms in His Kingdom: Josiah and Other Kings in the Ancient Near East”, *ZAR* 12 (2006), 131-68; L. K. Handy, “The Role of Huldah in Josiah’s Cult Reform”, *ZAW* 106 (1994), 40-53.

8 이처럼 책의 발견이 종교개혁의 기점이 된 경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L. K. Handy, “Historical Probability and the Narrative of Josiah’s Reform in II Kgs”, S. W. Holloway and L. K. Handy (ed.),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s for Gösta W. Ahlströ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52-75; T. Römer, “Transformations in Deuteronomistic and Biblical Historiography: On ‘Book-Finding’ and Other Literary Strategies”, *ZAW* 109 (1997), 1-11.

9 G. H. Jones, *1 and 2 Kings, Volume II* (Grand Rapids: Eerdmans, 1984), 612.

10 J. Priest, “Huldah’s Oracle”, *VT* 30 (1980), 366-68.

11 W. Gafney, *Daughters of Miriam: Women Prophet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2008), 103.

12 Handy, *윗글*(1994), 52-53.

다.¹³ 왜냐하면 홀다가 거주하던 제2구역(הַגְּזֵרִים/미슈네)은 포로후기의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으로서(숙 1:10; 느 11:8, 17) 궁궐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슈어(B. Scheuer)는 홀다가 성전이나 궁궐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궁중 고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¹⁴ 크리스텐센(D. L Christensen)은 예레미야와 홀다가 소위 아나돏의 ‘모세 집단’(Moses-group)에 속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높이 인정했던 왕정 이전의 전통적 가치를 지지했다고 주장한다.¹⁵

한편 웨임스(R. J. Weems)는 열왕기하 저자가 여성 예언자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은 남성 중심의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종교개혁 신학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¹⁶ 그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홀다의 예언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방증하며, 당시 남유다를 대표할 만한 예언자였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명기 역사가가 그의 예언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¹⁷ 하지만 벨빌(L. Belleville)은 고위 관료와 종교인들 그리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대표단의 크기는 홀다가 어떤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⁸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아닌 홀다에게 찾아간 것은 홀다의 예언자적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¹⁹

13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Garden City: Doubleday, 1988), 283-84.

14 B. Scheuer, “Huldah, A Cunning Career Woman”, B. Becking and H. Bartad (ed.), *Prophecy and Prophets in Stories* (Leiden: Brill, 2015), 107.

15 D. L Christensen, “Huldah and the Men of Anathoth: Women in Leadership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BLSP* (1984), 399.

16 R. J. Weems, “Huldah, the Prophet: Reading a [Deuteronomistic] Woman’s Identity”, B. A. Strawn and N. R. Bowen (ed.),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k D. Miller*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324.

17 Weems, *윗글*, 333.

18 L. L. Belleville, “Women Leaders in the Bible”, R. W. Pierce and R. M. Groothuis (ed.),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Complementarity without Hierarch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4), 113.

19 C. L. McKirland, “Chaper 10: Huldah: Malfunction with the Wardrobe-Keeper’s Wife,” S. Glahn (ed.),

이들 연구는 요시야 당시 홀다가 여성으로서 신적 권위를 지닌 인물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홀다 예언의 특성과 다른 계시 수단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대근동의 신탁가나 예언자와의 비교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왕기하에 기록된 대로 왕의 명령을 받아 ‘율법책’의 진정성과 가치를 검증한 홀다의 예언을 분석하고,²⁰ 이를 통해 홀다가 왕과 유다를 위해 어떤 예언을 선포했고, 그 예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대근동의 계시문헌(revelatory literature)과 비교하여 규명하도록 하겠다.²¹

2. 책의 발견과 힐기야의 제사장 신탁

열왕기 22-23장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이야기에는 율법, 예언, 신탁 등 다양한 계시적 수단이 등장한다. 우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הַסֵּפֶר הַבְּרִית/세페르 하토라, 왕하 22:8, 11)은 오늘날의 모세오경처럼 완성된 경전이 아니라 해석이 요구되는 하늘의 계시로 간주 될 수 있다.²² ‘토라’(תּוֹרָה)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손을 뻗거나, 나뭇가지나 화살 혹은 제비를 던지는 행

Vindication the Vixens: Revisiting Sexualized, Vilified, and Marginalized Women of the Bible (Grand Rapids: Kregel, 2017), 213-32.

20 본고는 편집사 연구나 요시야 개혁의 의미 연구보다는 열왕기에 기록된 홀다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요시야 본문의 편집층과 신명기 사가의 신학에 대해서는 이상원, “신명기사자에게 요시야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79(2021), 166-91; 이은우, “요시야의 성전정화와 예레미야” 『구약논단』 62(2016), 70-101을 참조하라.

21 비교 방법론에 대해서는 R. A. Segal, “In Defense of the Comparative Method”, *Numen* 48 (2001), 339-73; M. Chavalas, “The Comparative Use of Ancient Near Eastern Texts in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Religion Compass* 5 (2011), 1-15를 참조하라.

22 제사장들에게 ‘토라’는 짧은 형태의 제의 지침(학 2:11-13), 지혜자들에게는 교훈이나 가르침(잠 6:20; 7:1-2; 13:14)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책 형태의 오경은 포로기 이후에 정착되었다(느 8:1). 이동규, *빛갈*, 292.

등을 나타내는 동사 ‘야라’(יָרָה)에서 파생되었다.²³ 벨하우젠(J. Wellhausen)은 ‘토라’가 ‘야라’의 사역형으로서 미래를 해석하는 행동과 관계있으며, ‘우림과 둠뭇’을 사용해 신탁을 시행했던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²⁴ 따라서 ‘토라’는 율법, 교훈, 가르침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바르’와 마찬가지로 예언적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로도 이해될 수 있다.²⁵ 이사야(1:10; 2:3), 예레미야(6:19), 미가(4:2), 그리고 스가랴(7:12)와 같은 예언서에서는 토라가 다바르와 평행하여 등장한다.²⁶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열왕기하 23장에서 “언약책”(סֵפֶר הַבְּרִית/세페르 하브리트, 2, 21절. 참고. 24, 25절)으로 불리며, 요시아는 이를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24절)이라고 부르고 있다. 벤-도브(J. Ben-Dov)는 이 두 책이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토라’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22장과 신명기와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약책”으로 불린 23장을 구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⁷ 이를 위해 그는 고대근동의 토관 형식인 우일투(*u'iltu*)와 투푸(*tuppu*)를 비교하였다.²⁸ ‘우일투’는 신탁이나 예언 등을 보고하기 위해 간단히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수평 형태의 토관이며(SAA 9 5-8),

23 G. López, “תּוֹרָה”, *TDOT* 15, 611; J. E. Hartley, “יָרָה”, *TWOT*, 403.

24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Edinburgh: Adam & Charles Black, 1935), 394-97. 벨하우젠은 제의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함께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의를 주관하였으며 후대에 가서야 그 직능이 구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토라와 말씀은 유사 개념이며, 상호 교환 가능하였으며(신 33:9; 사 1:10; 2:3, 24; 8:16, 20),”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토라는 제사장과 예언자가 공유하였다. Wellhausen, *윗글*, 397.

25 J. Ben-Dov, “Writing as Oracle and as Law: New Contexts for the Book-Find of King Josiah”, *JBL* 127 (2008), 225-229.

26 ‘토라’의 계시적 특성은 마리와 신아시리아의 예언 문헌에 등장하는 ‘테르투’(*têrtu*)와 유사점이 있다. 이 용어는 간 결술 신탁의 응답을 뜻하지만 ‘신탁’, ‘결정’이라는 뜻도 있다. J. Ben-Dov, “Some Precedents for the Religion of the Book: Josiah’s Book and Ancient Revelatory Literature”, L. L. Grabbe and M. Nissinen, *Constructs of Prophecy in the Former and Latter Prophets and Other Texts* (Atlanta: SBL, 2011), 50; *CAD* 18, 357-67.

27 신명기 29장 1절은 신명기를 “언약의 말씀”(סֵפֶר הַבְּרִית/디브레 하브리트)으로 부르고 있다.

28 Ben-Dov, *윗글*(2008), 231.

‘투푸’는 장기간 기록물로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수직 토판으로(SAA 9 9-11) 징조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²⁹ 에살하돈이나 아슈르바니팔 같은 신아시리아의 왕들은 ‘우일투’ 형식으로 보고된 징조와 신탁 그리고 꿈과 예언을 여러 전문 신탁가들에게 검증하도록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요시아도 성전에서 발견한 ‘토라’를 검증하도록 명령하였다. ‘토라’를 왕과 민족의 운명을 알려 주는 징조나 예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시아 왕은 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왕의 측근들에게³⁰ 책에 실린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אֶת־יְהוָה/디르슈 에트-아도나이, 13절)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율법책에 대해 “물으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³¹ ‘묻다’, ‘구하다’라는 뜻의 동사 ‘다라쉬’(דָּרַשׁ)는 ‘샤알 브’(שָׁאַל בְּ)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할 때 사용하는 신탁 용어이다.³² 이 동사는 주로 ‘가다’(הִלָּךְ/할라크), ‘오다’(בוא/보), 혹은 ‘보내다’(שָׁלַח/살라흐)와 같은 동작(動作) 동사 뒤에 위치한다(왕하 8:8; 겔 20:1; 렘 37:7).³³ 이러한 문법적 배치는 신탁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혹은 사람들)을 임의의 장소로 보내었음을 알려준다. 그 장소는 성소처럼 제의가 시행되는 곳(창 25:22; 시 24:5)일 수 있지만

29 M. Nissinen, “Spoken, Written, Quoted, and Invented: Orality and Writtenness in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B. Zvi and H. Floyd (ed.), *Writings and Speech in Israelite and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Atlanta: SBL, 2000), 247-48.

30 ‘사반’은 왕궁 서기관(סֵפֶר/하소페르)으로서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의 아들 ‘아히감’도 왕궁 서기관이었다. 사반은 성전의 수리를 위해 기금을 모았으며 수리 과정을 감독하였다. ‘힐기야’는 제사장(הִכֹּהֵן/하코헨, 10, 12, 14절) 혹은 대제사장(הַגִּבּוֹר/하코헨 하가돌, 4, 8절)으로 불렸다. ‘악블’은 궁궐관리였으며, ‘아시야’는 왕의 시종(עֲבָדֵי־הַמֶּלֶךְ/에베드 하멜렉)이었다. 이들은 요시아 왕의 측근(inner circle)이었다.

31 어떤 학자들은 성전에서 발견된 책이 신명기의 일부 혹은 원신명기(Ur-Deuteronomy)라고 주장한다. M. Noth,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5), 275; 그레이, 윗글, 373-74; M. A. Sweeney, *I & II Ki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444.

32 L. J. Coppes, “דָּרַשׁ”, *TWOT*, 198-199.

33 S. Wagner, “דָּרַשׁ”, *TDOT* 3, 294.

대부분 불명확하다(삼상 9:9; 왕상 14:5; 왕하 1:16; 3:11; 8:8; 22:13, 18; 대하 34:21, 26).³⁴

요시아 왕은 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이 ‘우림과 둠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제사장 신탁’(priestly divination)을 주도하기 때문이다.³⁵ 하지만 힐기야가 ‘우림과 둠뭇’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탁을 구하는 ‘다라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예언자 처럼 말을 통해 신탁을 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³⁶ 이처럼 제사장 신탁은 도구의 사용 없이 질문과 대답으로만 이루어질 때도 있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제사장은 신탁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 혹은 ‘아니요’라는 양자택일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³⁷ 요시아 왕은 신탁을 통해서 자신과 왕국의 운명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하였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적 말씀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가 크도다”(כִּי־גְדוֹלָה הַחַמַּת / 키 그돌라-하마트)라고 하며, 심판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했다.³⁸ 그래서 자신과 왕국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하였다.

요시아 왕은 제사장 힐기야 뿐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

34 Wagner, 윗글, 302.

35 제사장 신탁은 우림과 둠뭇 뿐 아니라 예봇, 드라빔, 법궤, 혹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강승일, “우림과 둠뭇, 예봇, 그리고 언약궤-제사장의 점술도구들”, 『구약논단』 44(2012), 118-123. 제사장 신탁은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36 C. van Dam, *The Urim and Thumim: A Means of Revelation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109-12.

37 H. B. Huffman, “Priestly Divination in Israel,” C. L. Meyers and M. O'Connor (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55.

38 홉스는 ‘키 그돌라 하마트’라는 문구가 과거의 심판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주석한다. T. R. 홉스, 『열왕기하』 (WBC 13; 서울: 솔로몬, 2013), 614-615. 원제는 T. R. Hobbs, *2 Kings* (Chico: Word, 1985).

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함께 명령을 내렸다(12절). 왕이 이들에게도 명령을 내린 것은 신탁의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다. 신탁은 예언과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제사장에게 의해서 시행되며, 참석자들은 그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힐기야와 동행한 왕의 측근들은 신탁의 과정과 결과를 왕에게 증언할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공개적 신탁은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신탁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³⁹

열왕기하 22장 13절에는 신탁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탁의 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신탁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면 심판을 예상한 왕의 판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왕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왕의 판단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도 또한 쉽게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신탁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다른 신탁을 통해 신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⁴⁰ 예를 들면,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는 시드기야와 400인 예언자들의 긍정적 예언이 옳은지를 판정하기 위해 왕으로부터 소환되었다.⁴¹ 또한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의 긍정적 예언과 자신의 부정적 예언을 비교하며 자신

39 윤동녕, “빅데이터로서의 종교적 지식이 권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2017), 140-43.

40 고대 그리스에서도 답변이 불명확한 경우 두 번째 신탁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윤동녕, “고대 그리스의 피티아와 고대근동 및 고대 이스라엘의 여예언자들”, 『서울장신논단』 29(2021), 20-23을 참조하라.

41 미가야의 예언과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S. J. DeVires, *Prophet against Prophet: The Role of the Micaiah Narrative (1 Kings 22)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rophetic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8)을 참조하라.

을 거짓 예언자라고 몰아간 유다 백성들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⁴²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탁은 늘 검증(check-up)의 대상이었다.⁴³ 신탁은 통상적으로 관찰의 첫 단계(*restitum*)와 검증(*piqittum*)의 두 번째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⁴⁴ 주전 18세기 마리 왕국의 한 편지(ARM 26 100-bis [=A.4222])에 따르면 전쟁에 나간 군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탁과 검증 신탁을 실시한 후 “나는 두 번 검증했습니다”라고 하며 신탁의 결과를 왕에게 보고 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검증 신탁은 같은 방식의 신탁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원 신탁과 다른 방식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면, 천문 신탁은 간 신탁으로 검증하고(TCL 3 317), 간 신탁은 다른 간 신탁으로 검증하고(ARM 26 182; SAA 4 142), 점술 신탁으로 예언을 검증하기도 하고(ARM 26 204), 때로 예언을 통해 점술 신탁의 결과를 인정받기도 하였다(SAA 10 111). 요시아 왕도 제사장 신탁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제사장 신탁을 다시 실시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신탁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헐기야와 왕의 측근들을 예언자 홀다에게 보냈다. 워스는 이러한 방식이 신명기의 전형적인 문학 양식이라고 주장하지만,⁴⁵ 고대근동의 문화와 종교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행위였다

42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예언에 대해서는 T. W. Overholt, *The Threat of Falseho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eremiah* (London: SCM, 1970); J. L. Crenshaw, *Prophetic Conflict: Its Effect upon Israelite Religion* (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D. Y. Yoon, “Jeremiah, the Deviant Prophet”, *Madang* 34 (2020), 45-78을 참조하라.

43 E. Leichty, “Divination, Magic, and Astrology in the Assyrian Royal Court”, S. Parpoa and R. M. Whiting (ed.), *Assyria 1995*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7), 162.

44 U. S. Koch, “Bias in Observations of Natural Phenomena Made for Divinatory Purposes”, J. C. Fincke (ed.), *Divination as Science*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16.

45 Weems, *읽글*, 324.

3. 홀다의 예언에 나타난 제왕신탁의 요소들

홀다의 예언은 유다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왕하 22:15-17)과 요시아 왕에 대한 구원 예언(왕하 22:18-20)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⁶ 어떤 주석가들은 홀다의 예언에 유다의 운명과 왕 개인의 운명이 합쳐진 것은 서로 다른 자료가 합쳐진 결과라고 주장하며,⁴⁷ 원래 홀다의 예언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⁴⁸ 하지만 꼭 두 개의 자료가 편집자에 의해 합쳐졌다고 볼 수는 없다. 요시아 왕은 한 번의 명령으로 유다와 왕의 운명이라는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령하였기에, 하나의 예언에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홀다의 두 예언은 문학적으로 같은 양식이다. 둘 다 예언자의 사자형식(15절, 18절)으로 시작되며, 그 이후 유다와 요시아를 향한 본격적인 예언이 기술된다. 아마도 후대의 편집자는 이처럼 비슷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예언의 메시지를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수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⁴⁹

46 로핑크(N. Lohfink)는 요시아 이야기를 “왕이 보냈다”라고 시작하는 본문들(22:3-11; 23:1-3)과 “왕이 명령했다”로 시작하는 본문들(22:12-20; 23:21-23)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본문들은 모두 왕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맺는데, 전체적으로 계약 갱신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즉 ‘회개’, ‘구원신탁’, ‘계약 갱신’, 그리고 ‘축제’이다. 로핑크는 이러한 구조가 요시아 생애에 내내 완성되었고, 이 때문에 열왕기의 저자가 왕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N. Lohfink, “Die Bundesurkunde des Königs Josias (Eine Frage an die Deuteronomiumsforschung)”, *Bib* 44 (1963), 261-88.

47 M. A. Sweeney,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5-51.

48 A. F. Campbell and M. A. O'Brien, *Unfolding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rigins, Upgrades, Present Text* (Minneapolis: Fortress, 2000), 458. 켈벨과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홀다의 원래 예언은 두루마리가 진실한지를 밝히는 것이었다고 한다. 편집자들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포로가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비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49 정중호, 『열왕기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86-87.

1) 힐기야 신탁의 검증과 심판 선언

제사장 힐기야와 왕의 신탁들은 ‘토라’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홀다를 찾았다. 윌슨(R. R. Wilson)에 따르면 요시아 왕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홀다에게 중재를 부탁하였다고 한다.⁵⁰ 홀다의 중재 기능은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15절)에게 전하라는 말에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16절 이후에는 보낸 사람이 왕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15절에서는 왕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보낸 사람”이라고만 말한다. “보낸 사람”은 신탁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의 내용이 신탁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머-켄스키(T. Frymer-Kensky)는 요시아 왕이 당대의 유명한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아닌 홀다에게 왕의 사자들을 파견한 이유는 그가 이들 예언자와는 달리 신탁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⁵¹ 헨디도 홀다가 메소포타미아의 신탁가들처럼 방문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였다고 주장한다.⁵² 이들의 주장처럼 때로 예언자들도 신탁가처럼 방문자들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예언이 방문자의 의뢰에 대한 신탁의 응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압의 신탁가 발람의 경우 발락으로부터 저주 신탁을 요구받지만, 예언을 선포할 때는 그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민 23:5-12).⁵³ 또한 에스겔도 장로들의 방문을 받곤 했지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응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장로들 앞에서 예언을 선포했다고 보아야 한다(겔 8:1; 14:1; 20:1, 3). 예언자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언은 질문과 관계없이 하나

50 로버트 R. 윌슨,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 (서울: 예천사, 1991), 261. 원제는 R. R. Wilson,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80).

51 T.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A New Interpretation of Their Stories* (New York: Schocken Books, 2002), 325.

52 Handy, 윗글(1994), 45-46.

53 발람의 예언자적 특질에 대해서는 윤동녕, “민수기 22-24장에 표현된 발람의 역할 연구”, 『구약논단』 21 (2015), 126-55를 참조하라.

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홀다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קוֹ אֲמָר אֲדֹנָי)를 네 번(15, 16, 18, 19절; 대하 34:23, 24, 26, 27), ‘네움 아도나이’(נְעוּם אֲדֹנָי)를 한 번(19절) 사용하며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신탁의 결과가 아니라 예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홀다는 히브리 성서에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예언자 사자양식(messenger formula)에 따라 예언한 유일한 여예언자이다.⁵⁴ 예언자의 사자양식은 그의 예언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홀다 예언의 청취자는 힐기야와 왕의 신하들이다. 하지만 예언 선포의 직접적 대상은 요시야 왕이다. 홀다는 요시야 왕 앞에서 직접 예언을 선포할 만한 지위에 있지 못했다. 그래서 힐기야와 왕의 신하들은 홀다의 예언을 청취해 이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다. 이와 비슷하게 고대 마리아에서도 관리들이 예언을 수집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마리아 예언자들은 신전이나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언을 선포하였고, 관리들이 왕과 관련된 예언들을 취합해 왕에게 보고하였다(ARM 26 202, 210, 220, 221, 221bis, 234, 235).⁵⁵

홀다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왕하 22:16)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그 내용이 왕이 우려하던 대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배교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었다(왕하 22:17). 하지만 홀다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예언의 선포를 통해 사회적 병폐를 고발하지 않았다. 그

54 하모리(E. Hamori)는 예언자 사자양식이 홀다에 대한 열왕기 저자(들)의 태도를 알려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홀다에게 이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홀다가 권위있는 예언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E. J. Hamori, *Women's Divination in Biblical Literature: Prophecy, Necromancy, and Other Arts of Knowledge* (New York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5), 150.

55 윤동녕, “소셜 미디어로서의 예언의 역학-마리아문서의 예언현상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1(2011), 11-34.

는 사회적 불의보다는 이상승배가 재앙을 가져왔다고 선언한다.⁵⁶ 그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고는 예레미야 19장 3절과 비슷하다(참조. 렘 19:15; 11:11; 45:5). 그래서 일란(T. Ilan)은 신명기 사가의 어휘가 열왕기와 예레미야서에 같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⁷ 하지만 꼭 신명기 사가가 홀다의 뒤에 있다고 결론지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홀다의 예언은 히스기야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과도 비슷하기 때문이다(왕하 20:16-18).⁵⁸ 하나님께 불순종한 민족에 대한 경고와 심판은 어느 시대이든 비슷한 언어와 방식으로 선포된다.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홀다의 예언은 약 30년 뒤에 성취되었다. 유다는 홀다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다(왕하 24-25).

홀다는 당시의 고위 관료나 종교인들이 꺼내기 힘든 예언을 하였다.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이다.⁵⁹ 홀다는 회개를 독려하거나 심판을 벗어날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았다.⁶⁰ 심지어 요시야가 진행할 제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홀다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왕의 죄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다의 심판에서 요시야 왕이 제외되었다. 이처럼 심판 예언에서 왕이 제외된 것은 왕에 대한 간접적인 구원 신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왕에 대한 호의적 감정은 두 번째 예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56 블렌킨썬은 이상승배에 따른 재앙이 신명기계 편집자가 덧붙인 해석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조셉 블렌킨썬, 『이스라엘 예언사』 (서울: 은성, 1992), 209.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6).

57 Tal Ilan, "Huldah, the Deuteronomic Prophetess of the Book of Kings," *lectio difficilior* (1/2010), 6-8. (http://www.lectio.unibe.ch/10_1/pdf/LDdiff12010Ilan2.pdf)

58 Weems, *읽기*, 325.

59 Weems, *읽기*, 324.

60 W. Brueggemann, *1 & 2 Kings* (Macon: Smyth & Helwys, 2000), 547.

2) 홀다의 구원신탁

홀다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보다는 왕 개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홀다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혹독한 심판을 선포했지만, 왕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다. 홀다는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기에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선언한다(왕하 22:19-20).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홀다의 두 번째 예언이 “ 때문에 ... 따라서” (because ... therefore)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했으며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기 때문에 (because), 그래서(therefore) 그의 생애 내에 유다의 멸망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의 생애는 짧을 것이지만, 이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예루살렘과 유다의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⁶¹ 이처럼 왕이 비극에서 빚겨나겠다는 예언은 왕을 향한 구원신탁의 한 요소이다.⁶²

홀다는 요시야 왕이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עַל-אַבְתָּיִךְ יָשׁוּב/오시프카 알-아보테카, 왕하 22:20)라는 표현은 자연사를 나타내는 표준문구이다(창 25:8, 17; 35:29; 민 20:24; 신 32:50).⁶³ 하지만 요시야는 므깃도에서 사망해 예루살렘의 자기의 묘에 묻혔다(왕하 23:29-30). 따라서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평화로운 죽음이 후대의 편집이라고 주장한다.⁶⁴ 하지만 그레이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리라는 예고는 홀다의 원래 예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본문이 요시아 통치 시절에 편집되었을 것이라

61 Brueggemann, *위글*, 547.

62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회개함으로써 재앙이 자기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로 연기되었다는 엘리야의 예언을 듣는다(왕상 21:27-29). 왕을 향한 비극이 연기되었다는 엘리야의 예언은 아합왕에게는 구원신탁이다. 윤동녕, 『과거의 미래: 고대근동 종교 전문가들의 종교적 지식과 미래학』 (서울: 드림북, 2021), 181-82.

63 흡스, *위글*, 617.

64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86.

는 포러(G. Fohrer)의 주장을 인용하며, 요시야의 죽음 이후였다면 결코 왕의 죽음을 평화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⁵

이러한 점에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פָּתַח אֶל-קְבֻרָתוֹ בְּשָׁלוֹם) 네에사프타 엘-키브로테카 브샬롬)라는 문구가 죽음보다는 매장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⁶⁶ 왕이 “평안히” 묘실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בְּעִיר דָּוִד ~ עַם-אֲבוֹתָיו וַיִּקְבְּרוּ) /바이슈캅 (인명(人名) 임-아보타브 바이카베르 브이르 다비드, 왕상 2:10; 11:43; 14:20, 31; 왕하 16:20)라는 문구와 유사점이 있다. 이 문구는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가 이어지겠다는 왕조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⁶⁷ 왜냐하면 왕의 시체가 평안히 묘실에 있지 못하고 손상될 경우, 왕과 왕권에 대한 모욕과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⁶⁸ 예레미야는 왕들의 뼈들이 무덤에서 끌어내어질 것이라 예언하였는데(렘 8:1~2), 이는 왕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수치이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 죽거나 조상의 묘에 묻히지조차 못했다(렘 36:30-31). 이처럼 이방 땅에 묻히거나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다(렘 22:10-13). 물론 홀다

65 그레이, 윗글, 389.

66 P. S. F. van Keulen, “The Meaning of the Phrase *WN’SPT L-QBRTYK BŠLWM* in Kings XXII 20”, *VT* 46 (1996), 256-260. 어떤 사본은 “묘실”(키브로테카)을 복수형인 ‘키브로테카’로 읽는다. 이 단어는 단순히 ‘너의 묘실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확장의 복수’(plural of extension)로써 많은 무덤들이 한 장소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집단적 의미이다. G. J. Venema, *Reading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Deuteronomy 9-10; 31-Jeremiah 36-Nehemiah 8* (Leiden: Brill, 2004), 76.

67 M. J. Suriano, *The Politics of Dead Kings: Dynastic Ancestors in the Book of Kings and Ancient Israel* (Tübingen: Mohr Siebeck, 2010), 89-90. 열왕기는 즉위양식(regnal form)의 결론부에 ‘바이슈캅 (인명) 임-아보타브’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왕조의 지속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구는 개인의 부고를 알리는 문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Suriano, 윗글, 32-35.

68 예레미야 7:32-8:3에 따르면 망자가 매장되지 못하거나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망자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불명예로 여겨졌다. 특히 무덤이 파헤쳐져 뼈가 흩어지는 것은 후손이 땅을 잃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F. Stavrakopolou, “The Prophet Huldah and the Stuff of State”, C. A. Rollston (ed.), *Enemies and Friends of the State: Ancient Prophecy in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8), 287; *idem*, *Land of Our Fathers: The Roles of Ancestor Veneration in Biblical Land Claims* (London: T.&T. Clark, 2010), 103-20.

는 열왕기에서 왕의 평화로운 자연사를 표현하는 ‘바이슈캅 [인명] 임-아보 타브’(עַם אֲבָתָיו ~ וַיִּשְׁכַּב)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요시야가 살해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겠다는 표현은 앞의 표현처럼 왕과 왕조에 대한 지지를 선포하는 구원신탁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비록 요시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 이후 “조상들의 묘실” (대하 35:24)에 묻혀 평안한 휴식을 취할 것이고, 이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조를 이어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홀다는 왕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왕 개인에게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핸디는 왕에 대한 호의적인 홀다의 예언을 긍정적 심판(positive judgment)으로 규정하였다.⁶⁹ 핸디에 따르면 왕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열왕기 작가의 의도를 대변한다고 한다. 하지만 왕 개인에 대한 호의적인 예언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문서에 자주 등장한다. 바이페르트(M. Weippert)는 신아시리아 예언의 주요 대상이 왕들이고, 그 내용도 왕에게 호의적인 구원 선포임을 착안해, 그 예언을 ‘제왕 신탁’(royal oracle) 혹은 ‘왕을 향한 구원신탁’으로 규정하였다. 제왕 신탁은 주로 왕에게 선포되는데, 왕권 안정에 대한 신적 약속, 왕의 안전, 국내외의 대적들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왕조의 지속성을 약속하는 예언이다.⁷⁰

제왕 신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왕을 격려하기 위해, 혹은 신과 왕과의 관계를 재확립하기 위해 선포된다. 신아시리아의 예언자들은 “평화”(šulmu, SAA 9 1.9)와 “두려워 말라”(la-tapallaḫ, SAA 9 1.1, 1.2, 1.4, 2.2, 2.5)라는 문구를 사용해 왕을 격려하거나 신의 동행을 선포하였다.⁷¹ 이리

69 Handy, *윗글*(1994), 40-53.

70 M. Weippert, “‘Ich bin Jahwe’ - ‘Ich bin Ištar von Arbela: Deuterijosaja im Lichte der neuassyrischen Prophetie,” B. Huwlyer, et al. (ed.), *Prophetie und Psalmen: Festschrift für Klaus Seybold zum 65. Geburtstag* (Münster: Ugarit-Verlag, 2001), 33.

71 M. Nissinen, “Fear Not: A Study on an Ancient Near Eastern Phase”, M. A. Sweeney and E. B. Zvi

한 제왕 신탁의 요소는 홀다의 예언에도 등장한다. 그는 “평안히”(בְּשָׁלוֹם/브살롬)라는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 가게 해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는 구원신탁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묘실에 그의 뼈가 평안히 거한다는 약속을 통해 그의 사망 이후에도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왕조신탁을 선포했다. 또한 홀다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בְּכֹל הָרָעָה לֹא־תִרְאֶנָּה/로-티르에나 에네카 브콜 하라아, 왕하 22:20)는 문구를 통해 왕의 생애 내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안정된 왕권과 통치를 약속했다. 홀다의 예언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גַּם אֲנִי שָׁמַעְתִּי)는 문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며, 심판의 위기 가운데에도 여전히 왕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확증의 선언을 통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왕을 진정시켰다. 홀다는 왕에 대해서 부정적 예언을 선포하던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과는 달리 유다가 맞을 심판에서 왕이 제외되리라고 선포하며 요시아의 지위가 안전하리라는 구원신탁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홀다는 고대근동의 예언자들처럼 왕의 안전과 왕권의 안정을 약속하는 제왕 신탁가(royal prophet) 역할을 하였다.

4. 제왕 신탁가로서의 홀다의 역할

요시아는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계시 매체로 교차 확인을 시도하였다. 그는 힐기야의 제사장 신탁으로 ‘토라’의

(ed.), *Changing Face of Form Critic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2003), 122-61.

계시를 검증했고 홀다의 예언을 통해 교차 확인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대개 신탁이 예언을 검증한다. 왜냐하면 신탁은 과거로부터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징조를 해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탁가들은 징조를 읽고 해석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받아야 했다. 예를 들면, 천문 점술 신탁가의 경우 일월성신의 위치와 경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천문의 변화가 관찰되면 미래에 불행을 가져올 징조로 여겨 천문 점술 집을 참고해 이를 해석하고 불길한 징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⁷² 메소포타미아의 점술 신탁가들은 ‘움마누’(ummanū)라 불렸는데 학자라는 뜻으로서, 이는 이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⁷³ 이에 비해 예언은 거리에서 선포되었다. 예언자들은 교육받지 않았으며,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는 꿈이나 환상 혹은 황홀경 상태에서 계시받고 이를 선포하였다.⁷⁴ 예언은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점술 신탁과 달리 직관적(intuitive)이었기 때문에, 예언의 진정성이 늘 의심되었다. 그래서 마리의 경우 예언 보고문에 예언자의 ‘머리카락과 옷깃’(šārtum u sissiktum)을 동봉해 점술 신탁을 통해 예언의 가치와 진정성을 검증(piqittum)해야 했다.⁷⁵

힐기야의 제사장 신탁과 홀다의 예언의 관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탁과 예언의 관계와 정반대이다. 요시야의 이야기에서 제사장 신탁은 예언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점은 고대 이스라엘 예언만의 독특성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조 형성 이전의 본문에는 제사장 신탁이 자주 등장하지만, 왕조 시대에는 예언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요시야 왕이 힐기

72 윤동녕, *유클*(2021), 142-55.

73 A. L. Oppenheim, "Divination and Celestial Observation in the Last Assyrian Empire", *Centaurus* 14 (1969), 117-118; H. Tadmor, "Propaganda, Literature, Historiography: Cracking the Code of the Assyrian Royal Inscriptions", S. Parpola and R. M. Whiting (ed.), *Assyria 1995*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6), 4.

74 꿈 신탁에 대해서는 윤동녕, *유클*(2021), 78-90, 209-12를 참고하라.

75 E. J. Hamori, "Gender and Verification of Prophecy at Mari", *WO* 42 (2012), 1-22.

야를 거쳐 홀다에게 ‘토라’의 내용을 검증케 한 것은 당시 예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알려준다. 때문에, 홀다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들을 비교하자면, 홀다의 역할은 예언자보다는 궁중에 고용되었던 전문 신탁가인 ‘바루’(*bārû*)에 가깝다.⁷⁶ 신아시리아의 궁중에는 ‘천문 점술 신탁가’(툼샤루), ‘간 점술 신탁가’(바루), ‘약제 전문 신탁가’(아수), ‘주술 전문 신탁가’(아쉬푸), ‘애가 전문 신탁가’(칼루)와 같이 왕에게 고용된 5개 그룹의 전문 신탁가들이 상주하였다.⁷⁷ 이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신탁을 시행하였지만 왕과 왕국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총칭하여 ‘바루’라고 하였는데, 힐기야는 기능면에서 ‘바루’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면에서 제사장인 힐기야가 예언자인 홀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홀다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힐기야나 다른 왕의 신하들처럼 왕의 측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윌슨은 홀다를 중앙 예언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요시아 왕의 초기 개혁의 결과로 중앙의 예언자가 되어 왕을 위해서 예언을 선포했다고 한다. 왕이 홀다를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중재를 구하기 위해 관료를 파견하였다고 한다.⁷⁸ 홉스도 홀다가 중앙에 속해 있었고, 이로 인해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예언을 신속히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⁷⁹

76 J. Stökl, “Deborah, Huldah, and Innibana: Constructions of Female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Hebrew Bible,” *Journal of Ancient Judaism* 6 (2015), 320-34.

77 S. Parpola, *Letters from Assyrian and Babylonian Scholars* (SAA 10;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3), xxxiv.

78 윌슨, 윗글, 261-65. 윌슨의 주장대로 요시아가 홀다를 모세와 같은 권위를 지닌 예언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홀다가 왕에게 직접 예언을 선포했다는 증거는 없다. 예언의 내용이 중앙의 관심과 일치한다고 해서 예언자가 중앙의 예언자는 아니다. 마리 예언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자들이 주변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왕과 관련된 중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79 홉스, 윗글, 615.

이처럼 홀다가 중앙에 위치했던 것은 궁중 관료로서, 궁궐의 인물들과 인맥이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⁸⁰ 하지만 홀다는 사무엘하 14장과 20장에서 왕을 위해 조언했던 현명한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궁궐에서 어떤 직함도 수여 받지 않았다. 궁중에서 여성들은 다른 남성들에 비해 존중받는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홀다는 왕의 의복 담당자의 아내로서 궁중의 핵심 인물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⁸¹ 하지만 그가 지니고 있던 예언적 능력 때문에 요시아 왕의 요청을 받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권력을 지닌 남성들보다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잠언, 조롱, 수사적 질문, 그리고 심리적 압박 기술을 사용하곤 하였다.⁸² 하지만 홀다의 경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어투로 예언을 선포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홀다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왕의 구원을 동시에 선포했다. 그의 예언자로서의 기능은 성전에서 발견된 ‘토라’에 의해 강화된다. 모두가 ‘토라’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홀다는 ‘토라’의 내용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이유로 왕에게 구원을 선포하였다.⁸³ 홀다가 요시아 개혁운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가 검증한 ‘토라’는 ‘언약책’으로 받아들여져 개혁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었다. 홀다는 전문적인 신탁가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으나 예언을 통해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슈어가 주장한 대로 홀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간 주

80 Cogan and Tadmor, *읽글*, 283-84.

81 Weems, *읽글*, 335.

82 Weems, *읽글*, 333.

83 Bruggemann, *읽글*, 549.

인공들(the agents of social transformation) 중 하나가 되었다.⁸⁴

5. 결론

홀다는 제사장 힐기야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종교인이 아니었으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하나님께 물으려는 왕의 요청을 받았다. 홀다는 한편으로는 힐기야가 주재한 제사장 신탁을 검증하여, 율법책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음을 확증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는 신탁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홀다의 대답이 신탁의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홀다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나 ‘네움 아도나이’ 같은 사자양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예언임을 밝히고 있다.

홀다는 요시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을 선포한다. 그는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겠지만, 요시야에게는 재앙이 비껴가게 될 것이라는 구원신탁을 선포한다. 그는 요시야 왕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 선언한다. 이처럼 평화로운 매장을 선포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통치권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점에서 홀다의 예언은 주전 18세기의 마리 왕국과 주전 7세기의 신아시리아의 제왕신탁(royal prophecy)과 유사점이 있다. 마리와 신아시리아의 제왕신탁은 왕의 안전과 제국의 안정에 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구원신탁이었으며, 예언자는 왕의 비판적 지지자였다.

홀다는 마리와 신아시리아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왕궁 내에서 활동하

84 Sheuer, 윗글, 109.

지는 않았지만, 왕을 목표로 하여 예언을 선포하였다. 홀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탁가인 '바루' (*bārû*)처럼 신탁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왕의 예언자로서 왕과 왕권을 수호하는 제왕신탁을 선포하여, 요시아 왕이 시행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강승일, “우림과 둠땀, 예뿌, 그리고 언약궤-제사장의 점술도구들,” 「구약논단」 44(2012), 118-123.
- 로버트 R. 윌슨,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 (서울: 예찬사, 1991). 원제 R. R. Wilson,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80).
- 리차드 넬슨, 『열왕기상하』 (김회권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 R. Nelson, *First and Second Ki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엄태항, “역대기에서 홀다의 예언: 대하 34:22-2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5(2017), 75-109.
- 윤동녕, “민수기 22-24장에 표현된 발람의 역할 연구,” 「구약논단」 50(2015), 126-55.
- _____, “빅데이터로서의 종교적 지식이 권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2017), 128-54.
- _____, “고대 그리스의 피티아와 고대근동 및 고대 이스라엘의 여예언자들,” 「서울장신논단」 29 (2021), 7-35.
- _____, 『과거의 미래: 고대근동 종교 전문가들의 종교적 지식과 미래학』 (서울: 드림북, 2021).
- 이동규, “구약성서와 종교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그 현대적 교훈” 「구약논단」 66(2017), 286-323.
- 이상원, “신명기사가에게 요시아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79(2021), 166-91.

- 이은우, “요시아의 성전정화와 예레미야”, 『구약논단』 62(2016), 70-101.
- 정중호, 『열왕기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조셉 블렌킨소프, 『이스라엘 예언사』 (서울: 은성, 1992). 원제 J.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6).
- 존 그레이, 『열왕기하』 (한국신학연구소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원제 J. Gray, *II Kings: A Commentary* (London: SCM, 1977).
- T. R. 홉스, 『열왕기하』 (서울: 솔로몬, 2013). 원제 T. R. Hobbs, *2 Kings* (Chico: Word, 1985).
- Belleville, L. L., “Women Leaders in the Bible,” R. W. Pierce and R. Merrill Groothuis (ed.),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Complementarity without Hierarch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4), 110-25.
- Ben-Dov, J., “Writing as Oracle and as Law: New Contexts for the Book-Find of King Josiah”, *JBL* 127 (2008), 223-39.
- _____, “Some Precedents for the Religion of the Book: Josiah’s Book and Ancient Revelatory Literature”, L. L. Grabbe and M. Nissinen (ed.), *Constructs of Prophecy in the Former and Latter Prophets and Other Texts* (Atlanta: SBL, 2011), 43-62.
- Brueggemann, W., *1 & 2 Kings: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00).
- Camp, C. V., “Huldah,” C. Meyer et al (ed.), *Women in Scripture: A Dictionary of the Named and Unnamed Women in the Hebrew Bible, the Apocryphal/Deuteronomical Book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Houghton Mifflin, 2000), 95-97.
- Campbell, A. F. and M. A. O’ Brien, *Unfolding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rigins, Upgrades, Present Text* (Minneapolis: Fortress, 2000).
- Chavalas, M., “The Comparative Use of Ancient Near Eastern Texts in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Religion Compass* 5 (2011), 1-15.
- Christensen, D. L., “Huldah and the Men of Anathoth: Women in Leadership in

-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84 Seminar Papers* (1984), 399-404.
- Cogan, M. and H. Tadmor, *II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1; Garden City: Doubleday, 1988).
- Crenshaw, J. L., *Prophetic Conflict: Its Effect upon Israelite Religion* (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Frymer-Kensky, T.,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A New Interpretation of Their Stories* (New York: Schocken Books, 2002).
- Gafney, W., *Daughters of Miriam: Women Prophets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2008).
- Hamori, E. J., “Gender and Verification of Prophecy at Mari,” *WO* 42 (2012), 1-22.
- _____, *Women’s Divination in Biblical Literature: Prophecy, Necromancy, and Other Arts of Knowledge* (New York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5).
- Handy, L. K. “Historical Probability and the Narrative of Josiah’s Reform in II Kgs,” S. W. Holloway and L. K. Handy (ed.),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s for Gösta W. Ahlströ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52-75.
- _____, “The Role of Huldah in Josiah’s Cult Reform” , *ZAW* 106 (1994), 40-53.
- Huffmon, H. B., “Priestly Divination in Israel” , C. L. Meyers and M. O’ Connor (ed.),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1983), 355-59.
- Ilan, T., “Huldah, the Deuteronomic Prophetess of the Book of Kings,” *lectio difficilior* (1/2010), 1-16. <http://www.lectio.unibe.ch/10_1/pdf/LDiff12010Ilan2.pdf>
- Jones, G. H., *1 and 2 Kings, Volume II: 1 Kings 17:1-2 Kings 25:30* (NCBC; Grand Rapids: Erdmans, 1984).

- Koch, U. S., "Bias in Observations of Natural Phenomena Made for Divinatory Purposes", J. C. Fincke (ed.), *Divination as Science: A Workshop Conducted during the 60th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Warsaw, 2014*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11-46.
- Leichty, E., "Divination, Magic, and Astrology in the Assyrian Royal Court", S. Parpoa and R. M. Whiting (ed.), *Assyria 1995*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7), 161-64.
- Lohfink, N., "Die Bundesurkunde des Königs Josias (Eine Frage an die Deuteronomiumsforschung)," *Bib* 44 (1963), 261-88.
- McKirland, C. L., "Chapter 10: Huldah: Malfunction with the Wardrobe-Keeper's Wife", S. Glahn (ed.), *Vindication the Vixens: Revisiting Sexualized, Vilified, and Marginalized Women of the Bible* (Grand Rapids: Kregel, 2017), 213-32.
- Na'aman, N., "The King Leading Cult Reforms in his Kingdom: Josiah and Other Kings in the Ancient Near East", *ZAR* 12 (2006), 131-168.
- Nissinen, M., "Spoken, Written, Quoted, and Invented: Orality and Writteness in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E. B. Zvi and H. Floyd (ed.), *Writings and Speech in Israelite and Ancient Near Eastern Prophecy* (Atlanta: SBL, 2000), 235-71.
- _____, "Fear Not: A Study on an Ancient Near Eastern Phase", M. A. Sweeney and E. B. Zvi (ed.), *Changing Face of Form Critic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2003), 122-61.
- Noth, M.,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5).
- Oppenheim, A. L., "Divination and Celestial Observation in the Last Assyrian Empire", *Centaurus* 14 (1969), 97-135.
- Overholt, T. W., *The Threat of Falseho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eremiah* (London: SCM, 1970).
- Parpola, S. *Letters from Assyrian and Babylonian Scholars* (SAA 10;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3).

- Priest, J., "Huldah's Oracle", *VT* 30 (1980), 366-68.
- Römer, T., "Transformations in Deuteronomistic and Biblical Historiography: On 'Book-Finding' and Other Literary Strategies", *ZAW* 109 (1997), 1-11.
- Scheuer, B., "Huldah, A Cunning Career Woman", B. Becking and H. Bartad (ed.), *Prophecy and Prophets in Stories* (OTS 65; Leiden: Brill, 2015), 104-23.
- Segal, R. A., "In Defense of the Comparative Method", *Numen* 48 (2001), 339-73.
- Stavropoulou, F., *Land of Our Fathers: The Roles of Ancestor Veneration in Biblical Land Claims* (LHBOTS 472; London: T.&T. Clark, 2010).
- _____, "The Prophet Huldah and the Stuff of State", C. A. Rollston (ed.), *Enemies and Friends of the State: Ancient Prophecy in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8), 827-43.
- Stökl, J., "Deborah, Huldah, and Innibana: Constructions of Female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Hebrew Bible," *Journal of Ancient Judaism* 6 (2015), 320-34.
- Suriano, M. J., *The Politics of Dead Kings: Dynastic Ancestors in the Book of Kings and Ancient Israel* (EAT 2/48;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Sweeney, M. A.,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I & II King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 Tadmor, H., "Propaganda, Literature, Historiography: Cracking the Code of the Assyrian Royal Inscriptions", S. Parpola and R. M. Whiting (ed.), *Assyria 1995*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6), 325-38.
- Van Dam, Cornelis, *The Urim and Thumim: A Means of Revelation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 Van Keulen, P. S. F., "The Meaning of the Phrase *WN'SPT 'L-QBRTYK BŠLWM* in Kings XXII 20", *VT* 46 (1996), 256-60.
- Venema, G. J., *Reading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Deuteronomy 9-10; 31-Jeremiah 36-Nehemiah 8* (OTS; Leiden: Brill, 2004)

- Weems, Rentita J., "Huldah, the Prophet: Reading a (Deuteronomistic) Woman's Identity," B. A. Strawn and N. R. Bowen (ed.),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k D. Miller*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322-33.
- Weippert, M., "'Ich bin Jahwe' - 'Ich bin Ištar von Arbela: Deuterocesaja im Lichte der neuassyrischen Prophetie," B. Huwylar, et al. (ed.), *Prophetie und Psalmen: Festschrift für Klaus Seybold zum 65. Geburtstag* (AOAT 280; Münster: Ugarit-Verlag, 2001), 31-59.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Edinburgh: Adam & Charles Black, 1935).
- Yoon, D. Y., "Jeremiah, the Deviant Prophet", *Madang* 34 (2020), 45-78.

검색어

홀다

요시아

여예언자

왕

제왕신탁

The Role and Function of Huldah as a Royal Prophet

Dong-Young Yoon

(Seoul Jangsin University)

This study will analyze Huldah's prophecy, which verified the authenticity and value of the 'book of law' under the order of the king, and compare the role of the prophecy with the ancient Near Eastern revelatory literature. Although Huldah was not a professionally trained religious specialist like Hilki-ah the priest, she was asked by the king to inquire God about the contents of the book of law found in the temple. Huldah, on the one hand, verified the priestly divination presided over by Hilki-ah, confirming that the book of law foretells the destruction of Judah. In this process, she seems to be acting as a diviner who receives an answer after inquiring God upon the king's request.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Huldah's answer is a result of divination as

www.kci.go.kr

Huldah only claims that the prophecies are from God. Huldah also proclaims a prophecy about the fate of King Josiah who is destined to have a similar fate as Judah, but Huldah declares that King Josiah will avoid judgment and enter the tomb in peace to return to his ancestors. Huldah promotes the stability and sovereignty of the king's authority by declaring a peaceful funeral. In this respect, Huldah's prophecy is similar to the royal oracles of Mari in the 18th century and Neo-Assyria in the 7th century. Mari and Neo-Assyrian royal oracles were essentially salvation oracles because of their great interest in the security of the king and the stability of the empire, and because the prophet was a critical supporter of the king. Huldah, like prophets of Mari and Neo-Assyria, did not work in the royal palace but proclaimed prophecies for the king. Additionally, like a professional diviner of ancient Mesopotamia, she was responsible for verifying the book of law, and as a prophet of the king declared the salvation oracle to defend the king and the royal authority, supporting the religious reforms implemented by King Josiah.

Keywords

Huldah

Josiah

Female Prophet

King

Royal Oracle

- 투고일: 2022년 7월 23일
- 심사일: 2022년 8월 6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24일

www.kci.go.kr